

통계로 본 야간노동 : 밤 근무, 생활 그리고 건강*

이 승 렬**

I. 글을 시작하며

24시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새벽에 배송일을 하는 택배기사 등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를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무심히 도움만 받아 왔던 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 글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야간노동실태를 알려주는 자료는 그다지 없는 편이다. 다행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야간노동(이 조사에서는 ‘밤 근무’라 하였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 조사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고 야간노동이 이들의 건강과 일-생활 균형과 가지는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 볼 것이다.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환경조사에서는 ‘22~05시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밤 근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가 근로환경조사로부터 확인하는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약간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에서 자신의 종사상 지위(상용직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밝힌 응답자로 한정하였으며, 군인은 제외하였다. 가중치로는 근로환경조사가 제공하는 표준화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2017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2014년에 부가조사로 ‘시간 사용과 삶의 질’을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

* 이 글은 이정희 외(2019), 『서비스업 야간노동 - 인간 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중 제4장의 내용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통계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손창현 연구보조원(한국노동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sy@kli.re.kr).

(한국노동연구원)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가장 최근의 근무일(휴무일 전날 제외)을 기준으로 평일 ____님이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취업자의 업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조사된 업무시간이 몇 개월 지속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 제약을 고려하면서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부가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야간노동 실태도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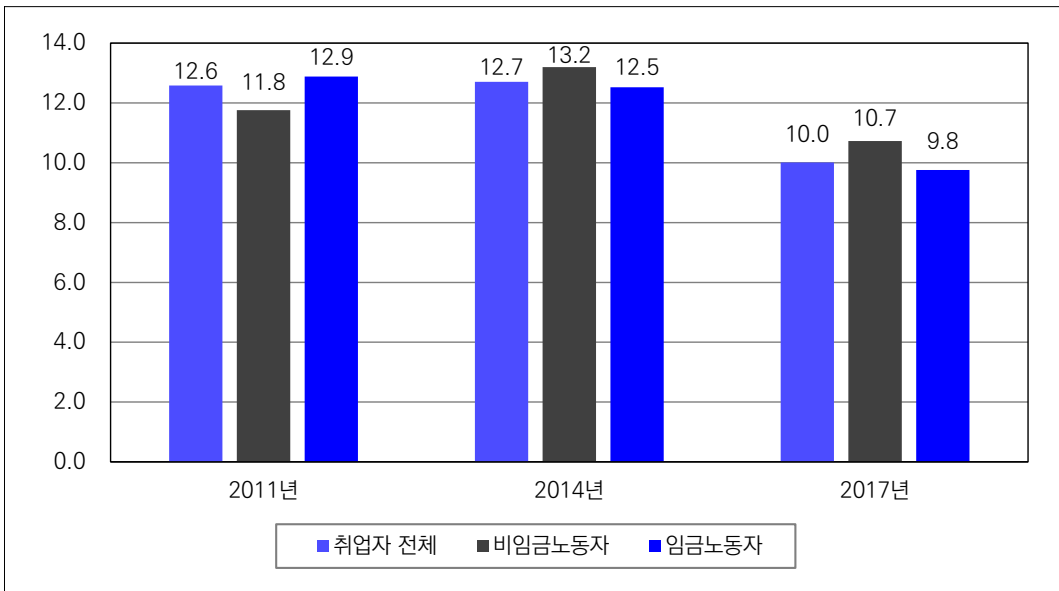
II. 누가 밤 근무를 하는가?

1.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밤 근무를 한다

먼저 밤 근무를 하는 취업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그림 1]을 보면, 취업자의 경우에

[그림 1] 밤 근무를 하는 취업자 비율(2011, 2014, 2017)

(단위 : %)



주: 1)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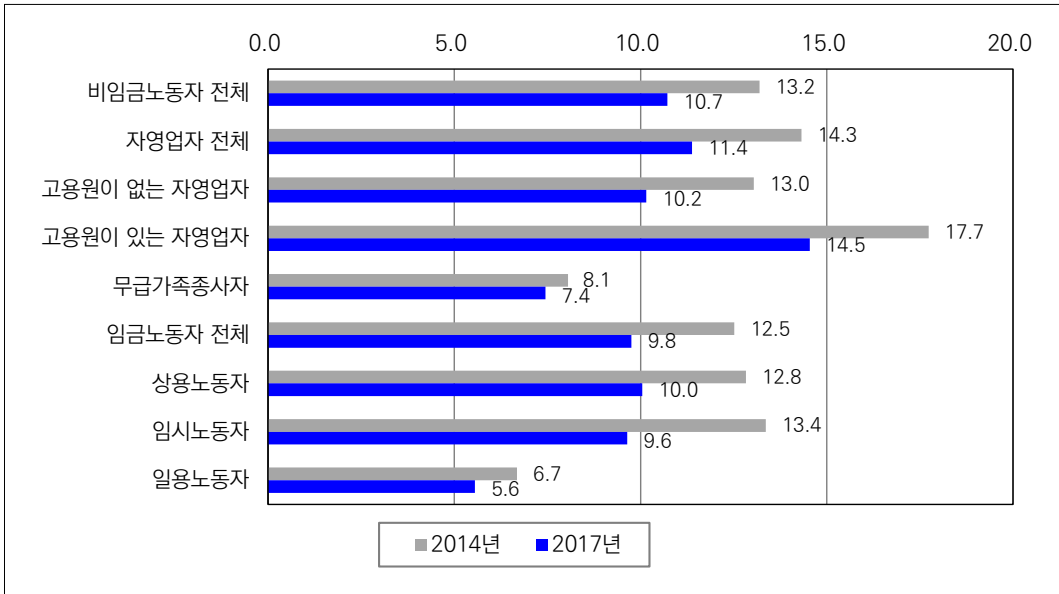
2) 표준화가중치(2017년은 최중가중치) 적용.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해당 연도.

1) 설문지 원본에는 “됩니까?”가 아니라 “되십니까?”로 되어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이라 필자가 수정하였다.

[그림 2] 밤 근무를 하는 취업자 비율(종사상지위별; 2014, 2017)

(단위: %)



주: 1)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2) 표준화가중치(2017년은 최종가중치) 적용.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해당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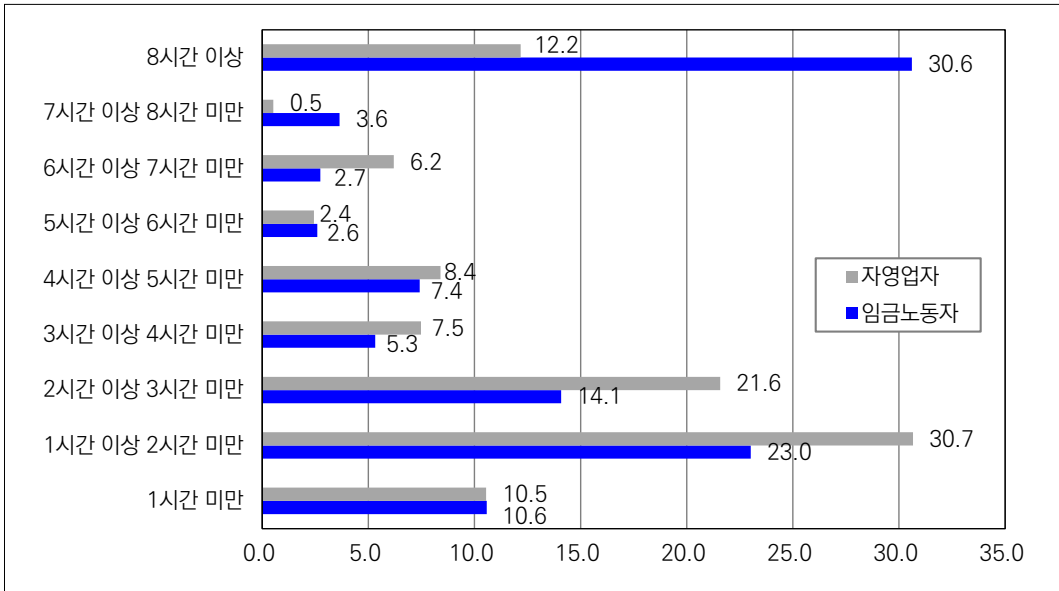
2011년에는 12.6%, 2014년에는 12.7%, 2017년에는 10.0%이다. 2017년 결과로 말한다면,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적어도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4년과 비교할 때, 밤 근무를 하는 응답자 비율은 약간 줄어들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2.7%p, 비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2.5%p,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2.7%p 감소하였다. 차이가 크지 않지만, 밤 근무를 하는 비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자보다 약간 더 많다는 사실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밤 근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에 이 비율은 14.5%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2017년에 상용노동자가 10.0%였으며, 임시노동자가 9.6%로 차이가 크지 않다.

2. 양극단을 보이는 야간노동시간대별 분포

근로환경조사는 22~05시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밤 근무로 간주하기에 실제로 어느 정도 밤 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조사 2014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야간노동시간대별 취업자 분포를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림 3] 야간노동시간대별 분포(2014년)



주: 1) 2014년 가중치 적용.

2)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에는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됨.

3) 3월 기준(전날, 당일, 다음 날).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부가조사(2014년)」.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취업자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였다. [그림 3]은 야간 노동시간대별 분포를 보인다.

먼저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30.6%가 야간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2시간 미만인 경우도 33.6%나 된다. 이처럼 밤 근무자라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길이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3시간 이상 밤 근무를 하는 임금노동자는 52.2%로 절반을 넘어섰다.

근로환경조사에서 임금노동자보다 밤 근무 비율이 약간 높았던 자영업자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8시간 이상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12.2%였다. 그리고 2시간 미만은 41.2%였다. 3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62.8%로 이 비율은 임금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두 수치로 볼 때, 밤 근무를 전일 노동으로 하는 임금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동시간대 일부를 ‘밤’에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밤 근무를 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어떤 특성의 취업자가 밤 근무를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종사상지위별로 볼 때 자영업자와 상용노동자가 높은 밤 근무 비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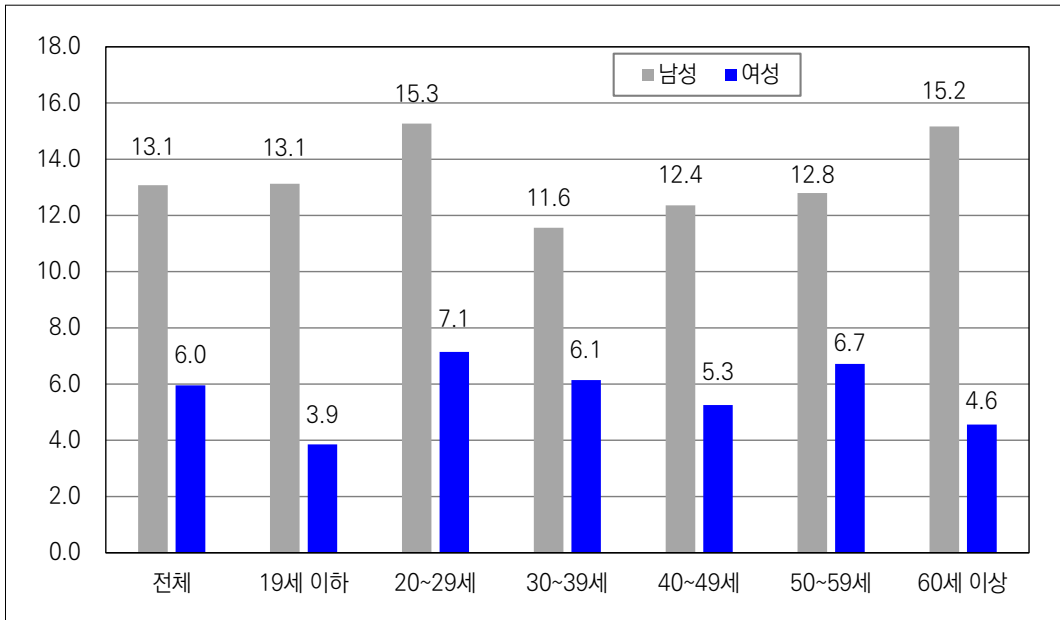
다시 근로환경조사 2017년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남성 취업자의 13.1%는 밤 근무를 하였으며, 여성은 이 비율이 6.0%였다. 여성은 20대가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0대가 6.7%로 둘째였다. 20대가 1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남성은 여성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60세 이상이 15.2%로 둘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마 감시단속적 노동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직업별로도 알아보았다. [그림 5]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직업은 장치·기계 조작원이다. 각각 22.5%와 24.1%이다. 다음은 서비스종사자로 각각 16.3%와 22.7%이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셋째로 각각 13.0%와 13.1%이다. 숙련도가 낮은 쪽의 직업에서 밤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전문가의 밤 근무 비율도 낮다고는 보기 어렵다. 임금노동자의 8.8%, 자영업자의 6.4%가 밤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림 6]은 산업별 밤 근무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운수업(28.9%), 전기·가스·수도업(19.1%), 부동산업·임대업(18.2%)의 순으로 밤 근무자 비율이 높았다. 자

[그림 4] 성별 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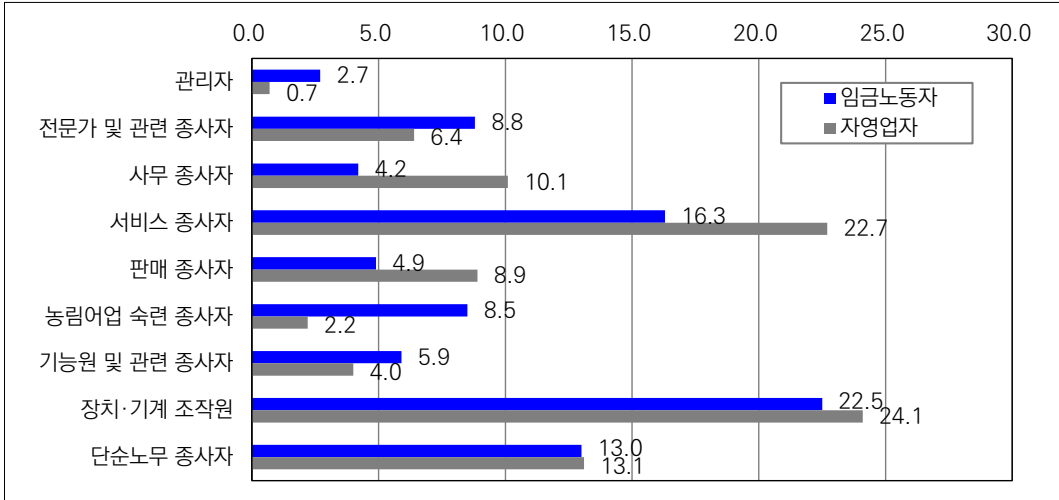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5] 직업별 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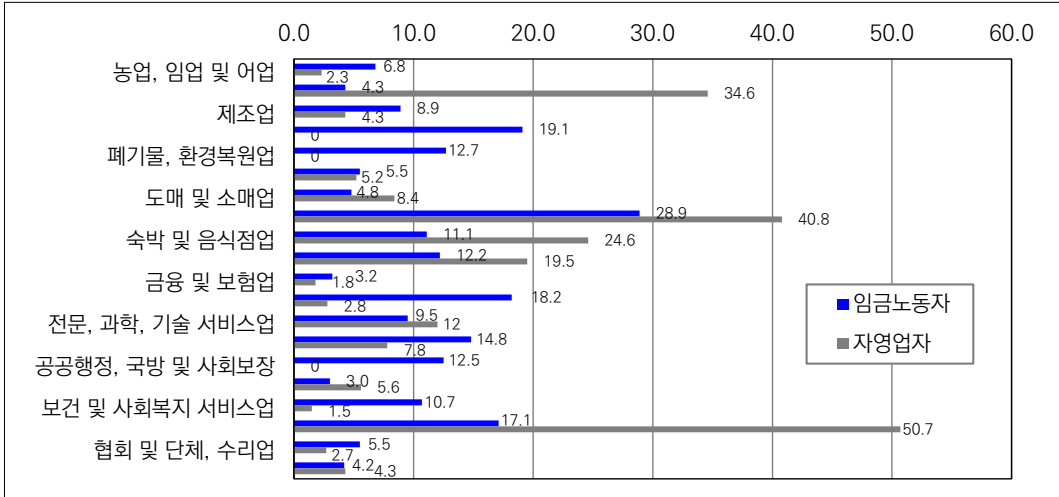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6] 산업별 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영업자의 경우에는 예술·스포츠·여가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50.7%로 밤 근무자가 절반을 살짝 넘어선다. 다음으로 운수업(40.8%), 광업(34.6%), 숙박·음식점업(24.6%)이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근무형태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운수업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높은 밤 근무자 비율을 나타낸다.

Ⅲ. 그렇다면 밤 근무자의 일과 생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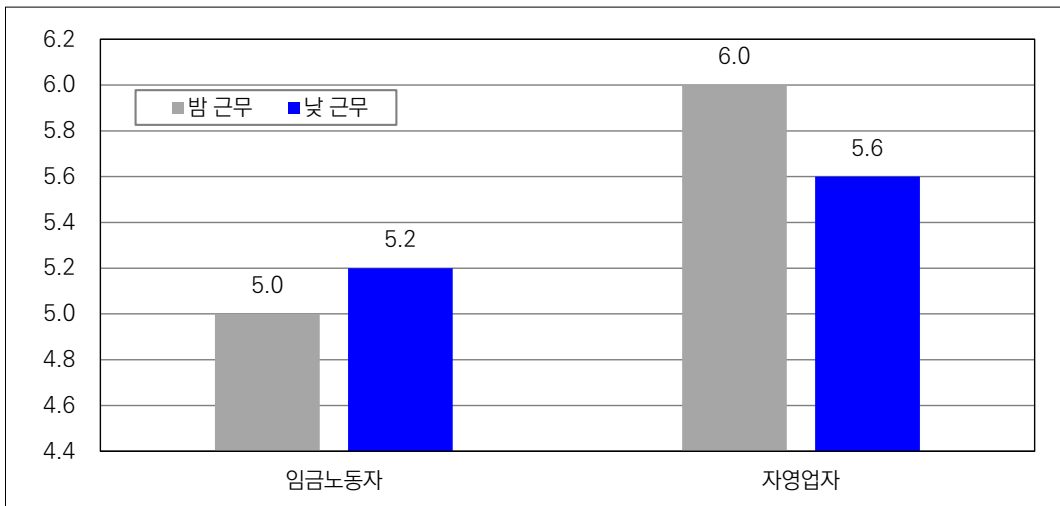
1. 매일 10시간 일하는 밤 근무자

주당 근무일수로 보면, 임금노동자의 경우 밤 근무자의 주당 근무일수는 주 5일로 05~18시에만 일하는 ‘낮 근무자’와 비교할 때, 0.2일 적게 일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런데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주 6일로 낮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의 5.6일보다 0.4일 길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은 낮 근무자보다 밤 근무자가 길었다(그림 8 참조).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밤 근무자는 50.3시간이고, 낮 근무자는 41.6시간이었다. 이를 1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해보면, 밤 근무자는 10.1시간이고, 낮 근무자는 8시간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자가

[그림 7] 주당 근무일수(2017년)

(단위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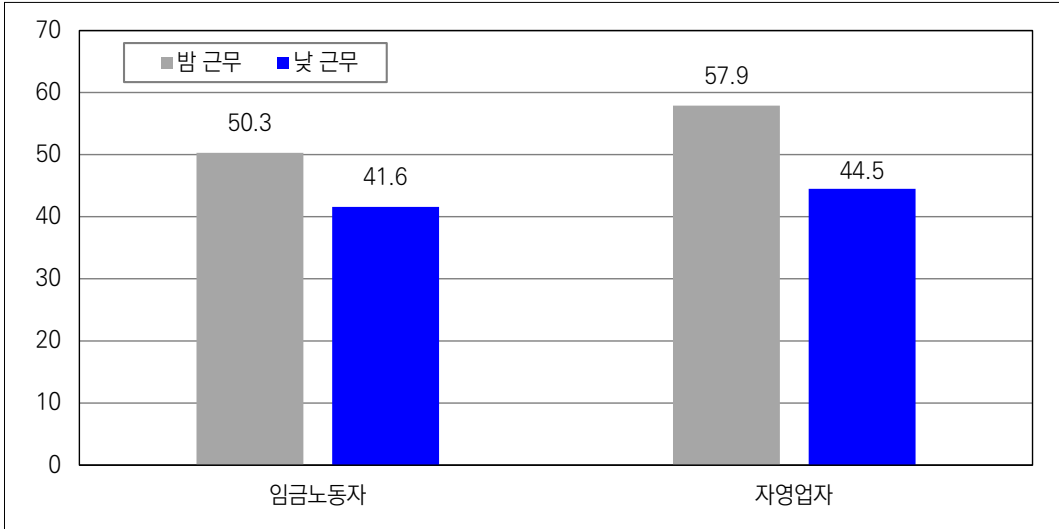


주: 가중치 적용.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8] 주당 근무시간(2017년)

(단위 : 시간)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57.9시간이고, 낮 근무자는 44.5시간이었다. 이들도 1일당 근무시간은 각각 9.7시간과 7.9시간이었다.

2. 가정·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밤 근무자

이렇게 매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밤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일을 하는 밤 근무자는 이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그림 9 참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임금노동자는 밤 근무자의 45.5%였으며, 자영업자는 이보다 높아 59.2%나 되었다. 특히 자영업자는 주 6일 근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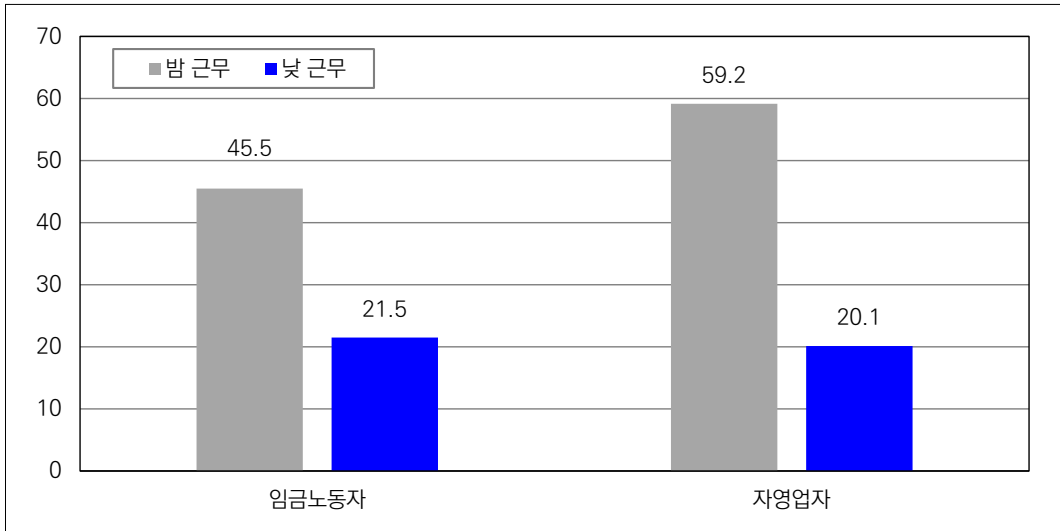
게다가 이들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하는 비율은 낮 근무자보다 높았다(그림 10 참조).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의 6할 가까이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낮 근무자보다 밤 근무자가 높았다(그림 11 참조). 이 비율이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58.5%이며, 자영업자는 68.2%나 되었다. 이는 낮 근무자보다 각각 16.7%p와 25.5%p 높았다.

그리고 업무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임금노동자의 6할, 자영업자의 7할이 갖고 있었다(그림 12 참조).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림 9] 근무시간과 생활(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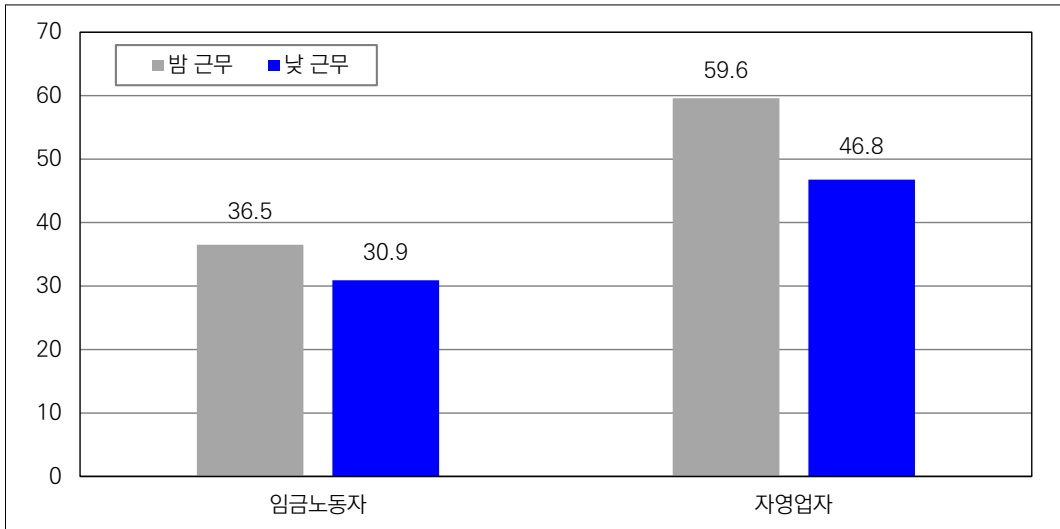
(단위 : %)



주: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적당하지 않다'와 '전혀 적당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10] 업무에 대한 걱정(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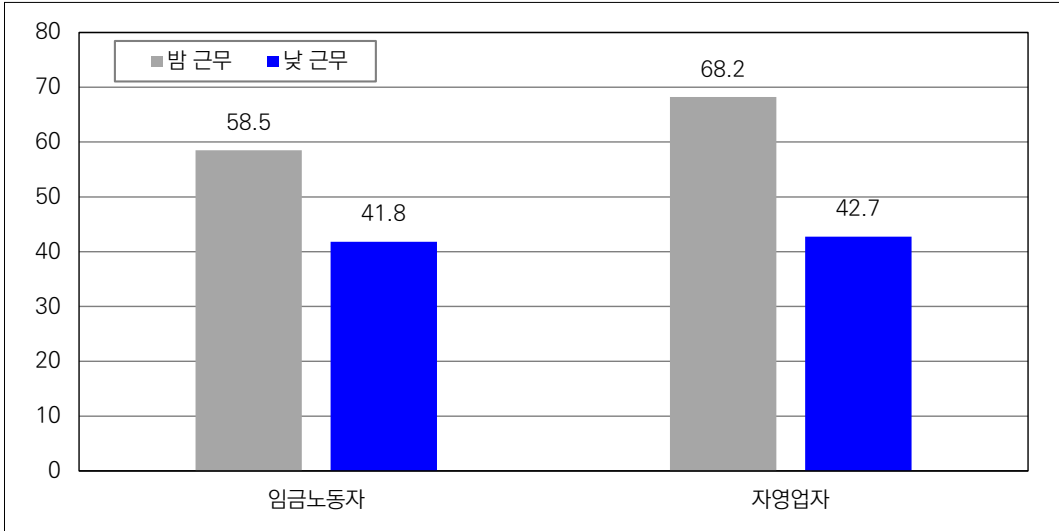
(단위 : %)



주: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11] 퇴근 후 피곤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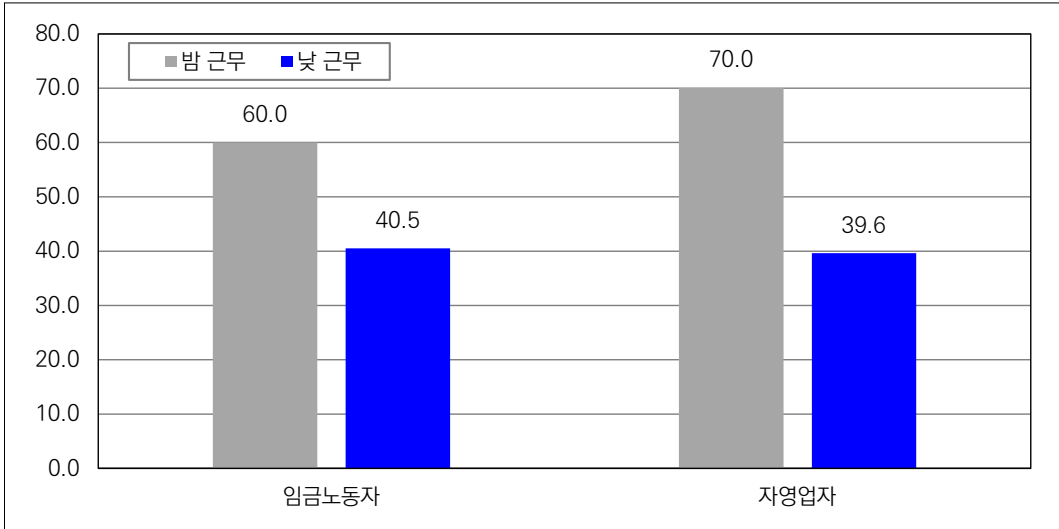
(단위 : %)



주: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12] 업무로 인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2017년)

(단위 : %)



주: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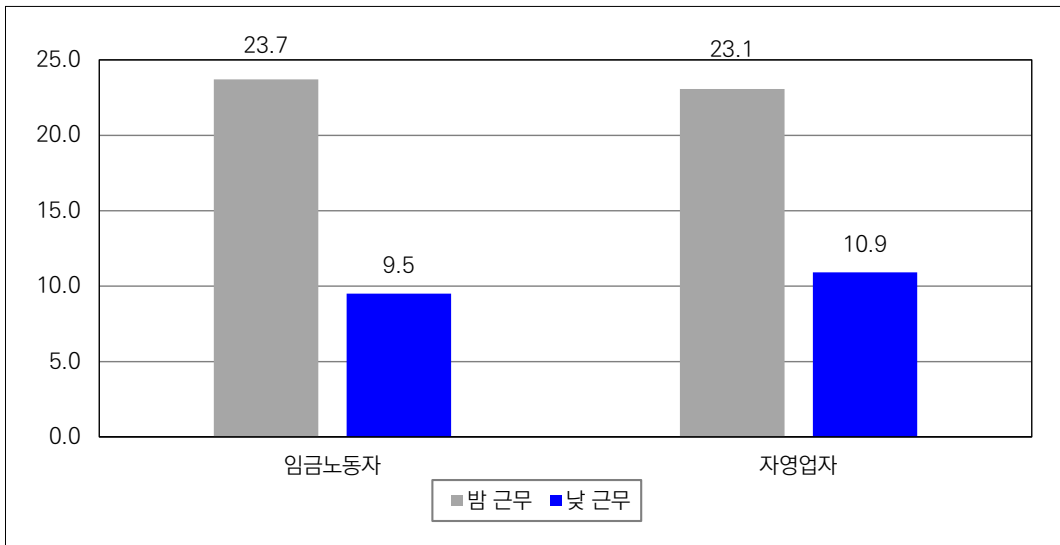
Ⅳ. 그리고 밤 근무자의 건강은?

업무가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마찬가지로 밤 근무자가 낮 근무자보다 높았다(그림 13 참조). 임금노동자는 23.7%, 자영업자는 23.1%였다. 이 때문에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진 비율도 밤 근무자의 경우에 높은 편이었다(그림 14 참조). 임금노동자의 34.1%와 자영업자의 51.8%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그림 15 참조).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밤 근무자의 2.5%, 낮 근무자의 1.8%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낮 근무자가 6.4%, 밤 근무자가 4.1%의 비율을 보인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응답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뜻하기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는 비율은 밤 근무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그림 16 참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낮 근무자와 밤 근무자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림 13]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업무(2017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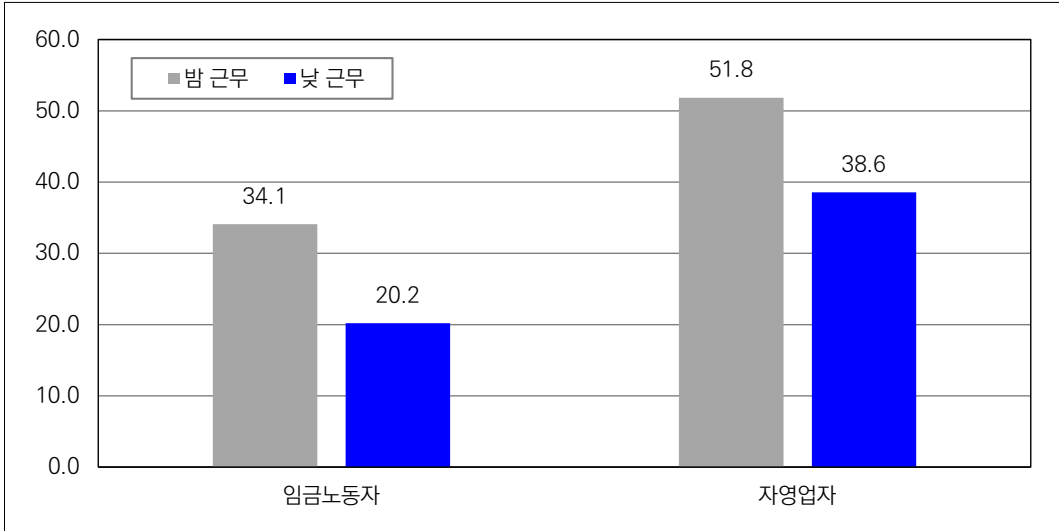


- 주 : 1) 가중치 적용.
-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 3)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14]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업무(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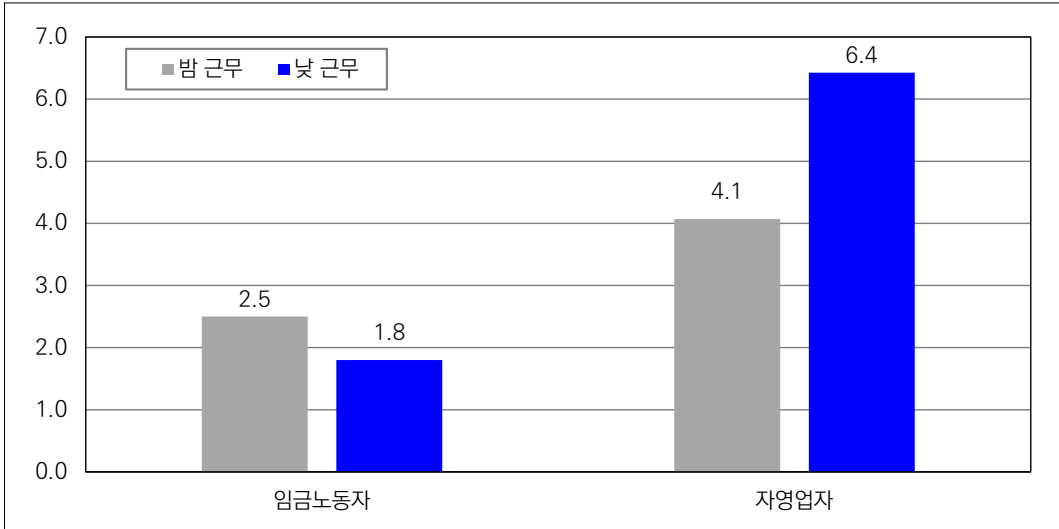
(단위 : %)



주: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15]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 정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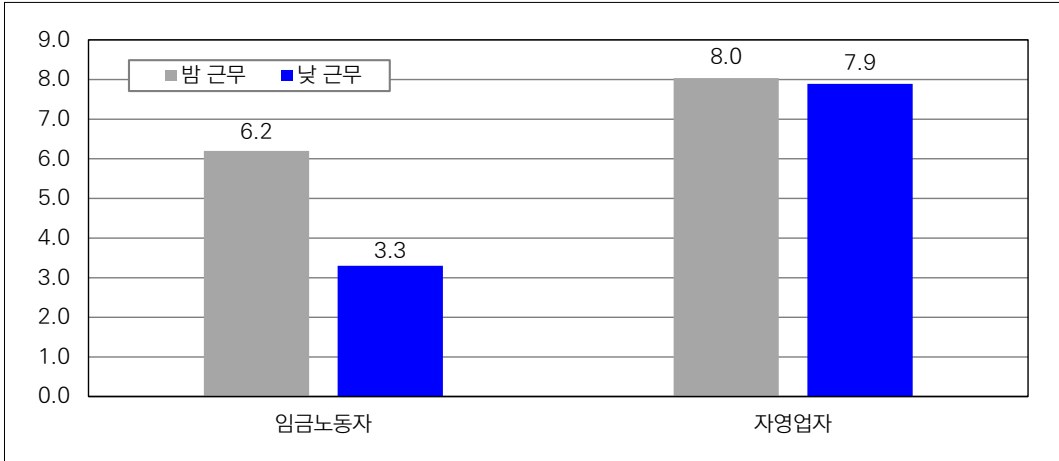
(단위 : %)



주: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그림 16]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건강 문제(2017년)

(단위: %)



- 주: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7년)」.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밤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밤 근무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밤 근무와 건강 상태의 상관성은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V.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는 근로환경조사(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와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이용하여 밤 근무 실태가 어떠한지, 밤 근무를 하는 취업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취업자는 10.0%(임금노동자는 9.8%, 비임금노동자는 10.7%)로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밤 근무자였다.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근무 시간에서 양극단의 분포를 보였다. 임금노동자의 30.6%는 야간노동시간이 8시간 이상이며, 2시간 미만은 33.6%나 되었다. 다만 자영업자는 3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셋째, 밤 근무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에 약간 더 높으며, 특히 20대와 60세 이상이 높은 편이

다. 여성의 경우에 밤 근무자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넷째,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는 장치·기계 조직원,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았으며, 산업별로는 운수업이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예술·스포츠·여가업, 광업, 숙박·음식점업이 높은 밤 근무자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주당 근무일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의 신체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인지 주 5일 근무가 지켜지고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의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이었다.

여섯째,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일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긴 주당 근무시간을 보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자가 50.3시간이나 되었으며,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평균 57.9시간이나 되어 밤 근무자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일곱째,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하며,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업무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여덟째,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건강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업무가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 비율도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높았으며,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많지 않은 편이어서 근로환경조사 결과로 반드시 밤 근무와 건강 상태의 상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밤 근무와 건강 상태의 상관성에 대한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는 비율은 밤 근무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한 가지 두드러지는 문제는 주당 근무시간이 밤 근무자가 길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주당 근무시간만 아니라 주당 근무일수도 6일이나 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약하게나마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자영업자의 건강이 좋지 않음이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자의 고령화 양상과 함께 임금노동부문에서 비임금노동부문으로 진입하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 특히 택배원을 필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여야만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채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²⁾ 2018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이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 **KLI**

2) 택배원과 관련한 야간노동실태는 이정희 외(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